

단설이단술 (Ankylotomy)

설유착증 (ankyloglossia)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설소대 (舌小帶)나 이설근 (genioglossum)을 보이며, 젓먹이에 있어서는 포유장애, 자음 특히 "표" "남"의 발음시 장애를 나타내며, 의치에 있어서는 유지력의 저하를 가져와 저작이나 발음시의 치탈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설유착증의 분류

- ① 부분 설유착증 (일명, tongue-tie)
- ② 완전 설유착증

수술법

- ① 설소대협자술 (lingual frenum clipping)
- ② 설소대결혼술 (lingual frenum nicking)
- ③ Z-plasty
- ④ V-Y plasty
- ⑤ 단설이단술 (ankylotomy)

수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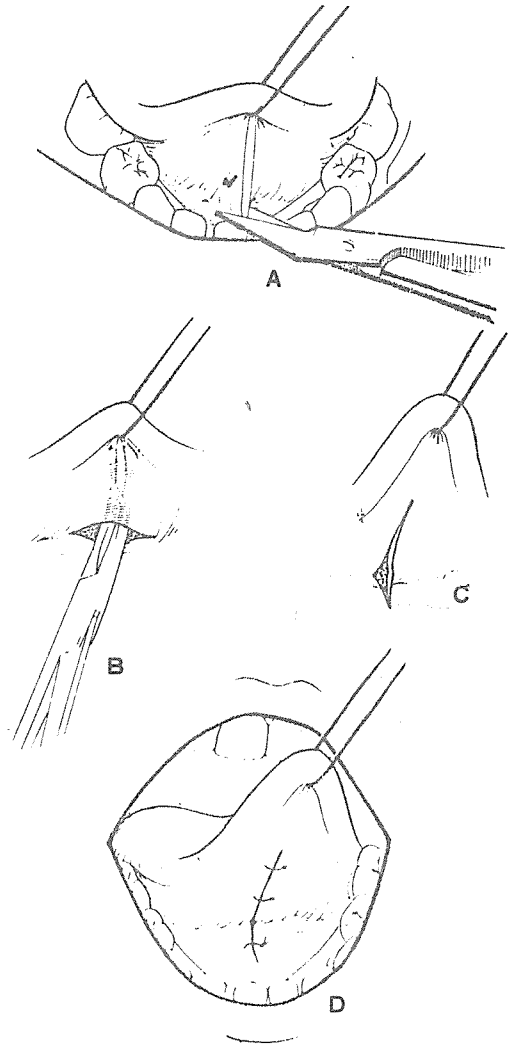
① 전신마취 혹은 국소마취하에서 실시한다.

국소마취시는 좌, 우측 실신경을 전달마취하여야 하며, 수술부위에 대한 침윤마취는 수술부위 조직의 변형을 초래하여, 정확한 절개선을 얻지 못하므로 피하여야 한다.

② 설침 가장자리 6~7 mm (1/4")되는 곳을 전인을 위해 봉합하여 수술시 혀의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③ 예리한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설침 (tongue-tip)과 기시부의 중앙부를 절단한 다음, 계속 후방으로 4~7 cm (1/2~3")정도 계속 절단하여 개구한 상태에서 설침이 상악 전치부에 닿을 수 있게끔 한다. (그림 A)

④ 절단부 좌, 우측 연조직을 박리한 다음, 3-0 black silk를 이용해 봉합해준다. (그림 B, C, D)



서울市認定第89号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전우치과기공소

代表 池 榮 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23~23

92-8926 93-0051